

#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불교는 '복지의 종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생명의 존귀함과 평등, 자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복지가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계는 다양한 복지활동을 통해 '전법과 교화'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 불교계는 짧은 기간적이지 않은 복지 성과를 올렸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 불교계의 복지 현황을 점검하면서 개선할 점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 ‘시설-인력-자금’ 복지자원 통합 관리해야

- 글 씀은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복지,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차방담



불교사회복지가 최근 10여년 사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는데 복지자들의 봉사활동 참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동복지	204
청소년복지	34
장애인복지	33
노인복지	98
여성복지	2
지역복지	42
근로복지	10
의료복지	4
부림인복지	3
장외복지	16
상담복지	2
자원봉사	12
사회체육	2
학술연구기관	1
기타	11
합계	474개

## “한국불교복지학 체계 세워야”

인터뷰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불교사회복지학은 현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완전한 우리 것이 생기지 못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스님(사진)은 현재 우리 불교사회복지학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현대 사회복지학의 근간이 되는 서구 사회복지학의 눈으로 한국불교사회복지를 바라봤을 때, 현재 한국불교복지학의 학문적 단계는 아직 타국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각 스님은 “불교복지와 사회

복지의 연계를 일찍부터 시작했던 일본불교사회복지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 스님은 “불교복지에 대한 의식이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한국불교복지학의 체계를 만들고 우리 불교복지만의 색깔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학의 철학에 한국 사찰의 전통적 빈곤대책, 현대사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사회복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님이 내놓은 방안은 ‘범 종단적 차원의 불교복지학 전문기구 설립’이다. 스님은 “특히 연구기관 설립, 인재 양성 등 하나의 종단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함께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 조언했다.

## 복지사대회 정례화로 정보교류 필요

### 참선·다도 등 불교 문화, 복지프로그램과 접목

타종교에 비해 근대 복지에서 뒤쳐졌다는 위기의식과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구현한다는 기조로 최근 10여년 사이 불교사회복지학은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설수의 팽창은 주목할 만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당시 단 두 곳에 불과했던 불교계 복지시설이 현재 기틀과 비슷한 수준인 463곳(2002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사기준)으로 급성장했다.

짧은 시간 동안 발전의 길을 걸어온 현대 불교복지학은 최근 타종교에 벤치마킹 사례가 될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사업 수탁 운영이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복지시설에 불교계 법인들이 대거 참여,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 아니라 ‘정서적 구제’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할 때, 불교사회복지학은 근본적으로 전법과 교화, 즉 포교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구체적 포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보다는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불교계 자체 시설이 없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이라는 복지단체의 정보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다. 시스템이 선행돼야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식 공유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연대의식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분기별 ‘복지사 대회’나 복지 프로그램 사례 발표회 등이 있다.

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체 시설 건립을 위한 준비 모임 등 실질적 활동으로 나아가 수 있는 계획과 행동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 불교계 복지관계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 정보네트워크 구축이 ‘미래’ 불교계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복지관 사이의 정보교환은 물론 ‘총괄적’ 기능을 하는 재단의 행정 지원 시스템의 보완이 최우선적 과제다. 복지관과 관련단체,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련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유기적 시스템 없이는 인프라 구축도 불가능하다.

개신교는 총회-노회-지교회의 각 사회부로, 가톨릭은 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교구 사회복지국-본당 사회복지분과

종단	합계	비고(단위:개)
조계종	81	이동복지 31, 지역사회복지관 15, 노인복지시설 10, 장애인복지시설 9
태고종	8	이동복지 7, 노인복지 1
천태종	4	이동복지 2, 노인복지 1, 장애인 1
진각종	22	이동복지 11, 지역사회 4, 노인복지 5, 장애인 1, 가정복지 1
총지종	2	노인복지 1, 청소년수련원 1

■ 복지관간 경쟁 과열...연대의식 높이기 불교계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지나친 경쟁 구도’를 불교계 복지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경기도 A복지관의 한 사회복지사는 “관장들이 같은 구역 내 불교계 복지관보다 지자체에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는다.

이에 따라 같은 지자체내에 있는 불교계 복지관조차 서로 유기적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실패 사례 등을 복지사들이 공유하지 못해 각 복지관인력·예산 낭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 ‘정서적 구제’로까지 확대 필요 복지사들 사이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나눔 운동 의식 확산도 크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자원봉사의 경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자원봉사단체 소속 인원만 약 1500여 명, 여기에 천태종 복지재단은 호스피스 교육생을, 진각종복지재단은 노인 봉사인력을 계속 양성하고 있어 각 종단마다 특징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또 물품 나눔, 기증 등 ‘나눔 운동’도 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다. 불교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눔운동은 1994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생명나눔 실천본부(이사장 법장)’의 생명나눔운동이다.

불교사회복지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포교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 복지가 ‘물질적 배움’

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복지체계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 불교도 조계종의 경우 의형적으로는 총무원-교구본사-말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간의 연결 고리가 튼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총무원 말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게다가 교구본사에서 복지포교를 위해 따로 기구를 설치하고 말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해 미신고종교시설의 아동학대 사례로 지목된 ‘수경사’의 경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조차 관할 범위 안에 들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복지재단측은 유사복지시설의 인적 관리 수행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수경사 사건’은 모든 복지시설과 대체 복지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 불교적 복지프로그램 개발 시급 현재 불교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의 가

장 큰 문제점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없이 몇 사람에게서 주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서구제’라는 현대복지 흐름에 맞는 고급 프로그램 개발로 불교복지의 곧바로 포교로 이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이 바로 가장 직접적 복지포교의 수단인 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체 복지시설을 만들어 그곳에서 불교복지프로그램을 공모하거나 각 복지관의 회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 복지관은 대부분 위탁시설이므로 이에 맞춰 포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할 때다.

예를 들면 요즘 불교계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참선이나 명상의 경우, 일반인들에게도 정신 수련의 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같은 불교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특히 문화 프로그램은 다도, 사찰문화재 등 불교가 가진 지적·물적 재산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2005학년도 불교지도자 과정 제6기(3년) 신입생 모집**

**2005학년도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목	제출서류	개설경전	교수
불교학과 (정규, 통산 24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화엄경 약찬계, 유식 30송	환안스님, 묘주스님
대승경전학과 (주간, 통산 240명)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삼국유사	김상현 교수
근본불교학과 (주간, 통산 24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안반수의경	최종남 교수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 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5년 8월 1일 ~ 9월 5일 (월)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5년 9월 5일(월), 6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5년 9월 8일(목) 오후 4시  
• 대승경전학과 : 2005년 9월 6일(화) 오후 2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한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9월6일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주간반, 통산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실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5년 8월 5일 ~ 9월 5일 입학금 200,000원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 티베트어강좌(20명)			

전형방법	강의 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8월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8월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 : 9월 6일(화요일) 개강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학과) : 9월 7일(수요일)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문학과) : 9월 8일(목요일)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례문화학과) : 9월 6일(화요일)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티베트어강좌) : 9월 8일(목요일) 개강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2005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2005학년도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과정	기간	요일	법사	내용
• 토요일정규반	2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만춘스님, 문중순법사	이론, 실기
• 수요일간반	2년	매주 수요일(오후 7시~9시)	양성도, 민명중법사	실기
• 목요일간반	2년	매주 목요일(오후 12시~1시40분)	문중순 법사	실기
• 바 라 반	2년	매주 금요일(오후 3~5시)	지도스님	실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 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주간반 20명(2년) • 야간반 20명(2년)	• 한글불교의식회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5년 9월 3일까지 토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3:00~5:40 • 매주 수요일 오후 7:00(야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3:00(바라반)

3. 개강일시 2005년 9월 3일(토) 오후 4시30분(정규반)  
7일(수) 오후 7시(야간반)  
8일(목) 오전 12시(주간반)  
9일(금) 오후 3시(바라반)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5.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